



#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http://orthodoxkorea.org)



##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

마태오 제 1 주일  
모든 성인들의 주일  
성 유다 사도  
(제8조 † 조과 부활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 모든 성인들 찬양송 ----- 269
▪ 성당 찬양송
▪ 모든 성인들 시기송 ----- 269
▪ 사도경 : 히브리 11,33~12,2 - 269
▪ 복음경 : 마태오 10,32~33; 37~38; 19,27~30 --- 108
▪ 영성체성혈송 ----- 27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예 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면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강론 중에서)

#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피 시디아의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  
주교님께서 2022년 6월 10일 금요  
일 오전 4시 15분에 서울에서 향년 93  
세로 안식하셨습니다.

세계 총대주교청의 이 지혜 많은  
대주교께서는 참된 교회의 전통과 정  
신을 따라왔고, 다방면에 걸친  
사역과 일생에서 절제와 분별  
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덕망을 품에 안고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마지  
막 숨을 거두기까지 그리  
스와 한국,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  
하신 분께서, 주님의 포도  
밭에서 지치지 않고 씩씩하  
게 일하던 일꾼께서, 살아있  
는 선교사들의 지도자께서,  
이 모든 노고로부터 이제 평  
안히 쉬게 되셨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대주교  
께서는 지상의 삶에서 놀  
랍고 존경할 만한 영적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악  
한 마음과 사심이 없으  
셨고, 온유하셨고, 평화  
를 위하여 일하셨고, 새  
로운 선교 사역을 하  
는 데 있어 개인적 희생이나 위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대답하고 용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주교께서는 사랑과 관용, 겸손함,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력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 그리스인, 러시  
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포함  
한 슬라브어권 신자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성인 한 분께서 이제  
부터 천상의 고향, 하늘나  
라에 계시며 우리 모두  
를 위해 중보 기도를 올  
려주고 계십니다.

대주교께서는 이방인  
들의 사도 바울로의 모  
본을 따라 살아왔으  
니, 구세주 그리스도  
의 얼굴을 맞대고 바라  
보고 있는 지금, 사도 바  
울로의 고백을 다시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  
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  
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  
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  
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  
리고 있을 뿐입니다.”(2  
디모테오 4,7~8)

복되신 아버지시고, 우  
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사  
랑 많으신 목자시여, 영원히  
기억되시리이다.

한국과 그리스와 소아시아에 있는 당  
신의 양 떼들을 천상의 제단에서 기억하  
소서.

#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장례 의식



고 행의 삶에서 거룩하게 안식하신 한국의 초대 대교구장이자 현 피시디아의 대교구장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시신은 고인의 생전 바람에 따라 가평의 구세주 변모 수도원으로 모셔졌습니다.

고인의 소박한 수도원 거처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가 정성을 다하여, 수도자 장례 절차에 따라 안데리와 엑소라소(안과 곁에 입는 성직자 복장)를 고인에게 입혔습니다. 고인께서는 당신의 장례 때, 수도원에서 매일 예식을 집전하며 착용했던 영대와 오모포로와 나무로 된 앤골피온(주교 목걸이)만 걸어주기를 유언하셨습니다.

입관 절차를 마치고 수도원 성당으로 모신 다음, 고인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첫 번째 뜨리사기온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곧이어 사제들과 신자들의 복음경 봉독이 시작되어 다음 날 아침, 영혼 토요일 조과가 시작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신자들이 교대로 복음경을 봉독하-

며, 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혼 토요일 조과와 성찬예배에 이어서, 한국 정교회 대교구의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 의식이 '슬픔 어린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고인은 장례 때 추모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유언하셨기에 생략되었고 대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고인이 2009년에 수녀들에게 남기신 영적 조언이 담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소티리오스 대주교께서는, 참석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찬양송을 계속해서 부르는 부활의 분위기 속에서, 수도원 안뜰에 당신이 생전에 직접 준비해둔 묘에 안치되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난 후, 모든 참석자에게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께서는 영원히 기억되실 것입니다. 고인이 하늘에서 올리시는 기도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6월 24일(금) 오전 9시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  
축일 조과,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소식

### ■ 사도 축일 금식 시작

6월 20일(월)부터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축일 금식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는 수, 금요일을 제외하고 생선이 허용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사도들의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서울 대성당

### ■ 주일 점심식사 시작

그동안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던 주일 점심식사가 6월 19일부터 재개됩니다. 교인들 간의 더 깊은 친교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식사 준비에 필요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3일 추도식, 수도원 묘소에서)

##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관련 소식

### ■ 40일간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며 40일간 성찬예배를 다음과 같이 거행합니다.

1주간(6/13-18) : 수도원

2주간(6/20-25) : 서울 성당

3주간(6/27-7/2) : 부산 성당

4주간(7/4-7/9) : 전주 성당

5주간(7/11-7/16) : 수도원

40일 성찬예배는 터키 피시디아의 2개 교구, 아토스 성산과 그리스의 여러 성당, 미국 애리조나의 성 안토니 수도원에서도 거행될 예정입니다.

### ■ 3일, 9일 추도식 거행

3일 추도식이 6월 12일(오순절 주일)에 수도원에서, 9일 추도식이 6월 18일(토)에 서울 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 ■ 40일 추도예배

안식 후 40일에 드리는 추도예배는 7월 23일(토) 서울 대성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께서 오랜 기간 동안 병원과 수도원, 대교구 사택을 오가며 투병 생활하실 때, 아가ти 수녀, 아타나시아 봉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무상으로 치료를 제공해주신 성모병원 관계자분들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신 의료진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장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시고,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봉사로써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분과 가족에게 축복과 건강을 베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